

KTX 호남선 증편 청신호…변전소 개량비 정부예산 반영

변전소 용량 증설 사업비 100억 편성
2028년까지 노령 등 4곳 단계 개량
내년 5월 중련운행…좌석 1천석대 ↑
姜시장 “지역 힘 모아 증편 기반 구축”

내년도 정부예산에 고속철도 호남고속철도(KTX-청룡) 증편을 위한 변전소 개량 사업비 100억원이 최종 반영되면서 광주지역 숙원인 'KTX 호남선 증편'의 기반이 마련됐다.

전력 인프라 부족으로 지연되던 증편논의가 국가 차원의 예산 확보로 전환점을 맞게 된 것이다. 4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6년도 정부예산에 '고속철도 호남선 KTX-청룡 열차 증편을 위한 변전소 개량 사업비' 100억원이 반영됐다.

이는 광주시가 국토교통부·한국철도공사 등에 KTX-청룡 및 KTX-1 증편 필요성을 꾸준히 건의해온 데 따른 성과다.

또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정준호 의원이 변전소 개량 사업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사업 필요성을 적극 설득시킨 것도 주효했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9월23일 광주송정역에서 지역 정치권, 시민들과 함께 'KTX 호남선 증편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 호남선 운행 불공정 해소와 증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후 강기정 광주시장은 김운덕 국토교통부장관을 만나 증편의 시급성을 재차 강조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KTX-청룡은 중련 편성 시 기존 KTX-1 대비 약 1.4배의 전력이 소비되는 만큼, 안정적인 증편 운행을 위해서는 전력 공급 인프라 확충이 필수적이다.

실제 한국철도공사는 2023년 8월 KTX-청룡(중

련) 시운전을 진행하던 중 정을시 소재 노령변전소의 과부하로 전력 공급이 차단되는 사례가 발생, 변전소 용량 증설의 시급성이 정식 제기됐다.

광주시는 노령변전소 부분 개량이 완료되는 2026년 5월부터 KTX-청룡의 중련 운행이 가능해져 열차 한 편성당 1천석 이상 좌석 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는 기존 KTX-산천 중련 대비 약 300석 증가한 규모로 시민들의 만성적인 좌석 부족 불편을 대폭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철도공단은 예산이 확보된 만큼 2028년 평택-오송 복복선 사업 완료 이전이라도 KT

X-청룡 중련 운행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도록 호남고속선 내 노령 변전소를 포함해 개량이 필요한 4개 변전소(노령부용·논산·의산)의 변압기 용량 증설 사업을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강기정 시장은 "광주시와 지역 정치권이 함께 노력한 결과, 정부예산에 변전소 개량 사업비가 반영돼 단기적으로 KTX-청룡 중련 운행 가능성이 열렸고 장기적으로는 호남고속선의 안정적 증편 기반이 구축됐다"며 "KTX 호남선 증편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시민의 교통편의를 높여야겠다"고 밝혔다.

/변은진 기자



추억의 총장축제 표창·감사패 전달 4일 동구청 6층 대회의실에서 지난 22회 추억의 총장축제 유공자에 대한 표창 및 감사패 전달식이 열린 가운데 임택 동구청 장과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동구 제공)

전남 에너지기업 중앙아시아 진출 돋는다

道, 키르기스스탄·우즈베크 에너지워크 재생에너지·전략인프라 교류 협약 성과

전남도는 4일 “지역 에너지기업의 중앙아시아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5일까지 5일간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중앙아시아에너지워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에너지워크는 전남도가 지역 에너지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추진한 지원사업이다.

올해는 전남도가 주최하고 에너지밸리기업개발원, 녹색에너지연구원, 동신대학교, 전남테크노파크,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이 공동

주관했다. 태양광·소수력 발전 기업 등 14개 기업이 참여했다.

지난 2일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에서 열린 에너지워크에서는 키르기스스탄 에너지부와 재생에너지·전력계통 분야 정책교류와 기술협력, 시범사업 등 협력 체계 마련을 위한 '에너지 정책 후호 교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어 열린 에너지정책 세미나에선 키르기스스탄 경제부에서 지역에너지 균형을 위한 키르기스스탄의 역할을 소개하고, 전남테크노파크는 글로벌 재생에너지 현황과 전남도 에너지정책을 발표해 주목받았다.

수출상담회에선 전남 12개 에너지 기업과 키르기스스탄 에너지부 관계자, 현지 바이어가 다수 참여해 기술을 소개하고 협력 모델을 논의했다.

다. 전남 기업 컨소시엄은 현지 전력 인프라 개선을 위한 프로젝트를 제안하며 협력 가능성을 모색했다.

4~5일에는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로 이동해 에너지워크 프로그램을 이어간다.

타슈켄트에서는 현지 프로젝트 매니저와 바이어를 상대로 지역 기업 컨소시엄의 기술 소개와 비즈니스 상담회를 통해 우즈베키스탄 내 재생에너지·전력 인프라 프로젝트 참여 가능성을 모색한다.

정현구 에너지산업국장은 “에너지워크를 통해 전남도의 해외 협력 네트워크가 확대될 것”이라며 “에너지 기업이 키르기스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출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양시원 기자

“전남도에 고향사랑기부하면 곱창김이 둠”

10만원 이상 기부 2천명 증정 이벤트

전남도는 4일 “연말을 맞아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확대와 지역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케이(K)-김을 활용한 대규모 연말 이벤트를 진행 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기부문화 확산 뿐 아니라 전남 김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31일까지 전남도청에 10만원 이상 기부하고 담례품 후기를 작성한 선착순 2천명에게 전남 곰창김을 추가 증정한다.

이벤트는 기부 후 고향사랑e음에서 담례품을

주문해 수령한 다음 후기를 작성하면 자동으로 신청된다. 자세한 내용은 고향사랑e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남 22개 시·군은 3년 연속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 1위 달성을 위해 10만원 이상 기부자를 대상으로 기프티콘, 지역 특산품 등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남도는 시·군과 함께 5일 도청 1층에서 ‘제1회 전남도 고향사랑 기부의 달’ 행사를 개최, 시·군별 홍보관 운영, 현장 기부 이벤트 등을 통해 연말 기부 확산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양시원 기자

디지털시대 전남 응급의료체계 발전 모색

심포지엄서 중앙-지역 등 협력 논의

전남도는 4일 “구례 자연드림파크에서 5일까지 이틀간 ‘2025년 응급의료 발전 심포지엄’을 열어 디지털 전환 시대 지역 응급의료체계의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심포지엄은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료기관, 소방본부, 시·군 보건소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미래 전남 응급의료의 방향’을 주제로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반 응급의료 사업 현황, 응급의료사업 추진 상황 공유, 재난 발생 시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방안, 생활권 중심 재난대응체계 변화에 따른 역할 재정립 등 실무 중심의 내용을 다룬다.

행사 기간 현장응급의료소, 디매트 백(DMAT bag), 소방 구조 구급 장비 등 재난 대응 관련 장비를 직접 살펴볼 전시·체험 부스도 운영한다.

최소영 전남도 식품의약과장은 “디지털 기술과 재난대응체계가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중앙

과 지역,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며 “도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지역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시원 기자

오늘 ‘2040 광주권 광역도시계획안’ 공청회

광주시와 전남도는 5일 나주시 동신대학교 중앙도서관 동강홀에서 ‘2040 광주권 광역도시계획(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날 공청회는 미래차국가산단이 국가전략 사업으로 확정됨에 따라 이를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했다.

‘2040 광주권 광역도시계획’은 광주시와 인근 전남 5개 시·군(나주·담양·장성·화순·함평)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보고 서남권 대도시권·광역경제권·광역생활권을 조성하기 위한 장기계획이다.

경계지역 육성, 핵심산업 회랑 구축, 광역교통 연계 효율화 등이 주요 전략으로 담길 예정이다.

/변은진 기자

당, 당, 당 때문에 고생하고 계십니까?

- ☒ 효능·효과는 묻지마세요.
- ☒ 식전 2봉지 드시고 체크해보세요.
- ☒ 당일 즉석 떨어집니다.
- ☒ 신비의 약초 천연식품 재료로 제조하였습니다.



[식약처허가 제2019-05191645]

달빛고향 흑염소 진액

달빛고향 흑염소 진액은 흑염소부터 다릅니다!

- ☒ 100% 국산 자연방목 흑염소 진액 사용
- ☒ 식물성 재료 원료 배합
- ☒ 위생적이고 체계적인 제조공법
- ☒ 다년간의 노하우를 담아 깊고 깔끔한 맛

1박스-60,000원

내안에 향기를 채우다 이제 뿌리지 말고 드세요!

천연 해조류에서 추출한 수용성 규소를 기반으로 체내에서 발생하는 냄새를 제거합니다



1박스-120,000원

냄새 굿바이를 음용하시면 몸속 냄새의 근원이 사라지기 때문에 다양한 냄새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 추천!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 ☒ 대화 중 입냄새, 거드랑이, 발 냄새가 심한 분
- ☒ 갑자기 새어나오는 요실금 증상으로 소변냄새 걱정이신 분
- ☒ 매일 아침, 속편하고 활기찬 하루의 시작을 원하시는 분
- ☒ 대소변 냄새 감소를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을 원하는 곳 (요양원 등)

“본 제품의 효과는 개인의 체질, 사용 환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텔, 식당, 호프집, 요양원, 유흥주점

살포시 10분안에 냄새 제거!
냄새 악취 완전 제거 확실합니다.

2개월 분-70,000원

푸른도깨비 친환경 살균제 특장점

적 용 대 상	고추·양파·배추·무·딸기·포도·대파·모든 농산물
살 균 力	임소계 제품보다 250%이상의 산화력과 500%이상의 소독 능력
살균지속력	일반적인 살균제는 일시적인데 비해 7일이상 지속적인 살균력 유지
안 정 성	오존 및 차이염소·산나트륨(락스)에서 발행하는 소독 부산물이 없음
환경친화력	빛에 의해 쉽고 빠르게 분해되므로 인체에 무해하고 환경피해가 없음
악취 제거	악취 발생 곰팡이류와 박수 세균 등 분자 파괴로 악취 원인의 근본적 제거
병충해예방	식물로서 단자방 예방
1 유익균에 우호	유익균질과 선택적으로 반응으로 상대적으로 유익균에 우호적
2 중금속 제거	작업현장 수질의 가중 “중금속을 빠르게 산화”시키어 정화함
3 가스 제거	환경오염의 원인물질인 “황화수소 및 암모니아 등을 산화”시켜 제거
4 악취 균원 제거	단순 냄새 제거를 벗어나 일인 물질의 악취를 균원적으로 제거
5 살균의 지속성	박테리아나 균이 재 번식하는 현상을 억제하고 “내성이 생기지 않음”
6 기생충 억제	각종 “기생충들의 성장을 저하”시키고 기피제이므로 억제가 가능함
7 고도의 살균력	타 살균제에 비해 “2.5배 이상 강한 살균력과 5배 이상의 소독력”
8 무독성	타 살균제와는 달리 클로로아민·클로로페놀 등 발암물질 생성안됨
9 신선도 유지	수확시 침자·살포하는 것으로 수확물의 신선도를 오래도록 지속 가능

총판 및 취급점 모집

대양식품(주)

080-374-5046